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주/부여/청양 선거구

책자형선거공보

**새희망  
새일꾼!**

기호

**3**

믿음직한 국회의원

**전홍기**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선거구

##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3	민생당	전홍기	남	1952. 11. 14 (67세)	전홍기 영어 학원장	마닐라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영문학과/2007. 6~ 2010. 10/학사학위)	(전)김영삼 전대통령 의전담당비서 (1982~1989/1992~1993)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60,000	60,000	해당없음	해당없음	고지거부	전시근로역(화농성종이염)	장남 : 육군이병(소집해제)

## 3. 세금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8,338	없음	없음	- 횡령 벌금 300만원 (2014. 4. 11)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2017. 11. 3)
후보자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해당없음		
직계존속		해당없음		
직계비속	8,338	없음	없음	

## 4. 소명서

**횡령**은 당시에 강남 전철역 주변에 있었던 유학알선업체 운영자가 학부형으로부터 1년치 기숙사비와 학교 등록금을 수령 후, 해외에 있는 학원의 통장에 전체가 아닌 일부만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고 본인은 중간에서 학생과 부모의 피해를 줄이고자 유학등록금을 분납형식으로 완납을 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이는 이윤 추구 목적이 아닌 학생과 부모의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분납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횡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2017년 4월 초에는 문재인 대선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여론에서 앞설 무렵, 지역 언론 관계자들로부터 오시덕 시장과 박병수 시의원이 국민의당 입당을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국민의당 입당을 못 하도록 긴급기자회견을 열어서 오시덕 시장 그리고 박병수 시의원이 우리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고, 이로 인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넓은 과거로 후퇴할 것인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부여·청양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이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있는 정치인을 표방하며 국회에 보내주셨지만  
달라진게 있습니까?  
일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자신과 당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전홍기의 소신은 확고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던 책임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공주·부여·청양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합니다.  
**공주·부여·청양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 정치 야합이나 독재에

성명과 身分을 감춘  
익명의 시민들이 전화를 통해 제시한  
時局수습방안은 공통적으로  
대통령직선제와 의원내각제는  
국민투표에 붙여보라는 것

몇번 감지했다고 말했다. 한번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 전화로 상도동에 통보되었는데 곧이어 관할파출소서 그 사실의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

전화가 도청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전에 반드시 민주화를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공중전화이므로 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하고는 바로 끊었다는 것. 이 전화를 받은 田비서는 「목소리도 짐작해 볼 때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은 모든 통화내용을 세밀히 보고하는 게 아니라 빈도수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세가지만 취해서 하고 있다. 이 중 金총재를 비방하는 내용들, 예를 들면 『金泳三是 제2의 李敏雨다』 『金泳三이나 金大中이나 똑같은 놈들이 다』고 한 말까지도 한 글자 고치지 않고 알린다고 한다. 「놈」이란 말이 너무 원색적이어서 「자」로 바꾸려고 하다가 욱먹을 각오하고 그대로 보고 했더니 金총재는 묵묵히 이를 듣기만 했다고 田비서는 전했다.

金총재가 시민들의 전화내용을 자신의 정치구상에 참고하는지 아닌지는 비서진에서도

같은, 예를

들면 『金泳三是 제2의 李敏雨다』 『金泳三이나 金大中이나 똑같은 놈들이 다』고 한 말까지도 한 글자 고치지 않고 알린다고 한다. 「놈」이란 말이 너무 원색적이어서 「자」로 바꾸려고 하다가 욱먹을 각오하고 그대로 보고 했더니 金총재는 묵묵히 이를 듣기만 했다고 田비서는 전했다.

金총재가 시민들의 전화내용을 자신의 정치구상에 참고하는지 아닌지

같은, 예를

들면 『金泳三是 제2의 李敏雨다』 『金泳三이나 金大中이나 똑같은 놈들이 다』고 한 말까지도 한 글자 고치지 않고 알린다고 한다. 「놈」이란 말이 너무 원색적이어서 「자」로 바꾸려고 하다가 욱먹을 각오하고 그대로 보고 했더니 金총재는 묵묵히 이를 듣기만 했다고 田비서는 전했다.

金총재가 시민들의 전화내용을 자신의 정치구상에 참고하는지 아닌지

같은, 예를

들면 『金泳三是 제2의 李敏雨다』 『金泳三이나 金大中이나 똑같은 놈들이 다』고 한 말까지도 한 글자 고치지 않고 알린다고 한다. 「놈」이란 말이 너무 원색적이어서 「자」로 바꾸려고 하다가 욱먹을 각오하고 그대로 보고 했더니 金총재는 묵묵히 이를 듣기만 했다고 田비서는 전했다.

金총재가 시민들의 전화내용을 자신의 정치구상에 참고하는지 아닌지



통일민주당 총재비서시절, '6.10시대' 이후 상도동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총재를 비방하는 원색적인 표현까지도 욱먹을 각오로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소신있는 처신이 주간조선에 대서특필된 바 있습니다. (1987년 7월 5일자 주간조선)

# 굴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전 통일민주당 총재와 함께



민주산악회 회원들과 산행하고 있는 모습

# 바뀔시다, 준비된 소신

## 1 수차례에 걸친 연행 및 구금... 올곧은 소신

전홍기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의 뜻을 굽히지 않았기에 수차례 연행과 구금을 당했습니다. 독재권력이 갖은 회유를 통해 본인의 의지를 꺾으려 했으나, 정의에 대한 신념을 끝까지 지켜내며 오늘날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매진했습니다. 이런 소신으로 공주, 부여, 청양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 2 누구보다 앞선 '新행정수도'를 주장한 선견 정치인

대선 전인 2002년 8월말부터 노무현후보 조직 특보였던 박양수 (前 국회의원 · 前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지구 '신행정수도 이전계획 백서' 안을 토대로 여러차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 이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선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 연설을 담당한 저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본인의 소신이었습니다.

# 정치인으로~!!

## 3 우리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대선당시인 2002년부터 줄곧 공주에 내려와 공주·부여·청양의 지역민들과 애환을 함께해 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어려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어르신도,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농촌 현실도 목격했습니다.

세종시 출범에 따른 공주, 부여, 청양 지역의 위기를 고스란히 보고 왔기에, 우리 지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일꾼입니다.

## 진짜배기 일꾼은? 아무리 찾아봐도... 전흥기!



행정도시자문위원장 시절, 행정도시 합헌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흥기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서명을 독려하는 현장의 전흥기



(전)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 우리가 찾던 그 사람, 검증된 일꾼

공주

부여

공주시  
세종시  
완전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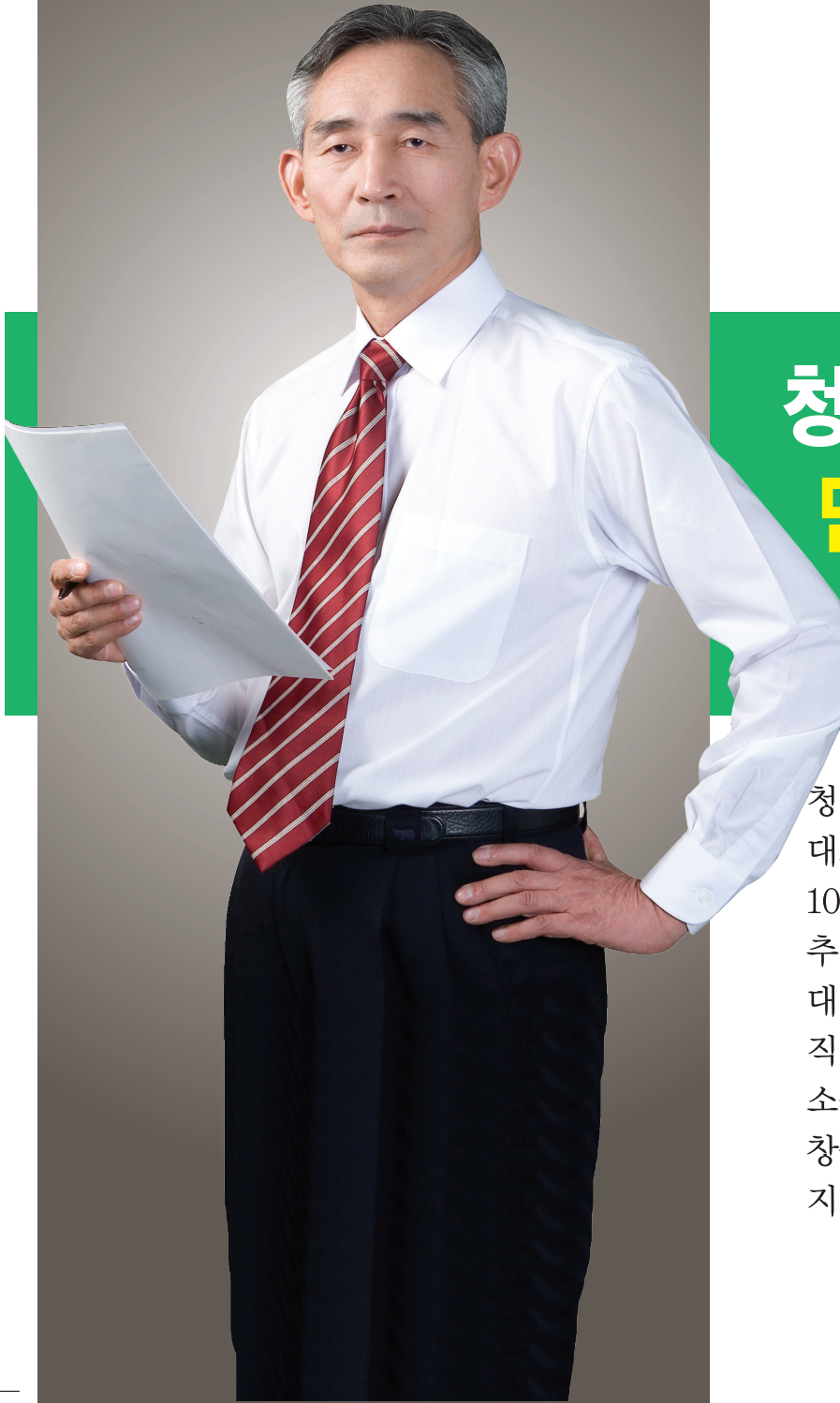
가로축 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세종시 인구가 35만명을 돌파하는 동안 공주시는 인구 10만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당시 인구, 땅을 모조리 빼앗겼는데 공주는 얻은게 없습니다, 공주가 살아날 유일한 해법은 통합 뿐입니다. 전홍기가 인맥과 경험을 총동원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보령~부여~공주~세종을 연결하는 ‘충청산업문화철도’를 반드시 건설해 지역발전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건설될 경우 철도역이 없는 부여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임을 감안,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 전홍기



청양

## 청양군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청양군에서 올해에 푸드플랜  
대도약의 해로 정하고, 5대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해 야심차게  
추진중입니다.

대전, 유성 등 대도시에  
직거래장터를 조성함으로써  
소규모농가도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공주·부여·청양의 희망 약속

## 미래의 행복이 있는 청정청양 건설

청양군은 충남의 중심으로 내포신도시와 세종시가 인접한 전원 휴양도시로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큼니다. 청양군의 이미지인 청정자연환경과 고추, 구기자 등 특산물을 살려 대규모 농업인 뿐만 아닌 소농까지 살리는 부자청양군을 건설하겠습니다.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물류망 구축
-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역농업 활성화
- 세종시, 내포신도시 대량소비처 인접에 따른 유통여건 개선
- 쾌적한 자연환경 활용한 주말휴양지로 발돋움
- 고품질 안전먹거리, 시장지향적 산지유통체계 구축
- 노인복지, 의료복지 효율적 연계시스템 구축
- 치매안심센터 설립
- 문화, 관광, 휴양, 힐링시스템 구축
- 청양 귀농, 귀촌정책 지속 추진을 통한 인구증가
- 산업단지 구축



## 문화·농업·산업의 삼각축 발전전략 수립

부여군 최초로 일반산업단지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농업과 관광위주에서 산업분야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산업단지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 굿뜨래 비지니스 농업 발굴 육성
- 야간 체류형 수변관광지 개발
- 부여 8미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 공주역-부여 연결 친환경 환승 교통시스템 구축

# 수원 전홍기가 꼭 지키겠습니다!!

## ■ 공주보 철거반대, 상시개방이 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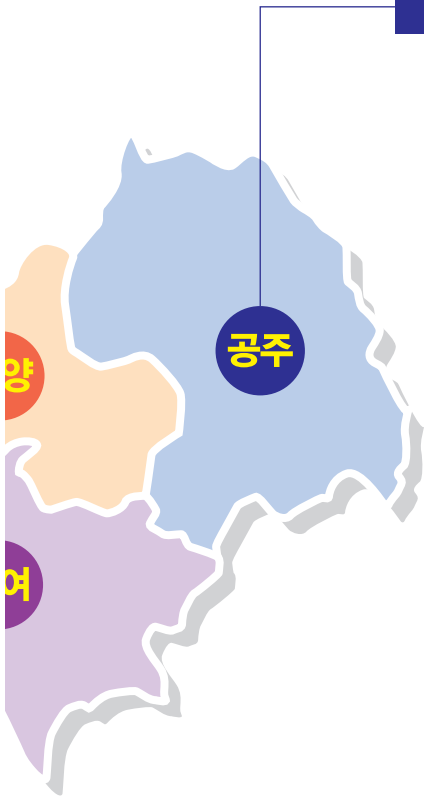
가뭄에 대비해 공주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거보다는 상시개방으로 수질을 관리하다가 수자원확보나 백제문화제 행사시 일시적으로 수문을 닫아 활용하는 방안이 현명한 해법입니다.

##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

단순히 선형개선을 통한 접근성을 높이기보다는 공주시 시내에서 공주역까지 4차선 도로를 건설해 공주역까지 10분대로 단축시킨다면 '유령역' 논란은 잠재울 수 있습니다.

-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 공주밤 생산농가육성 지원 및 협동조합, 자활기업 육성
- 장애 청소년과 장애부모가정 생활건강 추진
- 신관동 공영주차장 확충
- 수촌리고분군 역사유적공원 조성
-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
- 치매안심센터 확대운영
- 공주의료원 한방과 신설
-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활성화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 천주교 성지순례관광 육성

- 차별화된 백제문화제 활성화
- 부여~보령 국도 확장포장 사업
- 농업시설 첨단화 통한 농업인 수익 증대
- 백마강 관광자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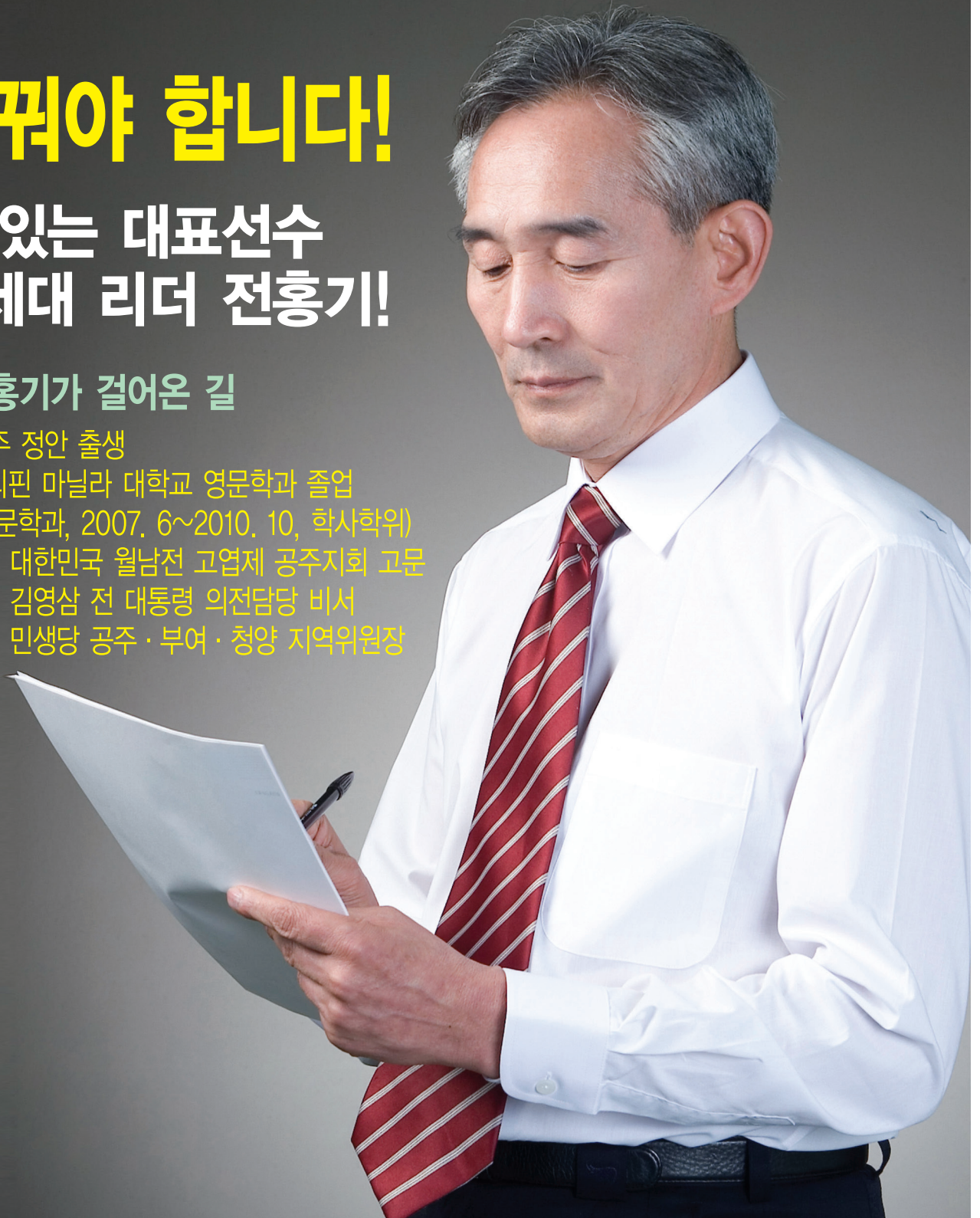


# 바뀌어야 합니다!

## 힘 있는 대표선수 차세대 리더 전홍기!

### ■ 전홍기가 걸어온 길

- 공주 정안 출생
- 필리핀 마닐라 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영문학과, 2007. 6~2010. 10, 학사학위)
- (전) 대한민국 월남전 고엽제 공주지회 고문
- (전) 김영삼 전 대통령 의전담당 비서
- (현) 민생당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



민생당

3

믿음직한 국회의원

전홍기

전홍기 후보 선거사무소 : 충남 공주시 국고개길 18(중동)